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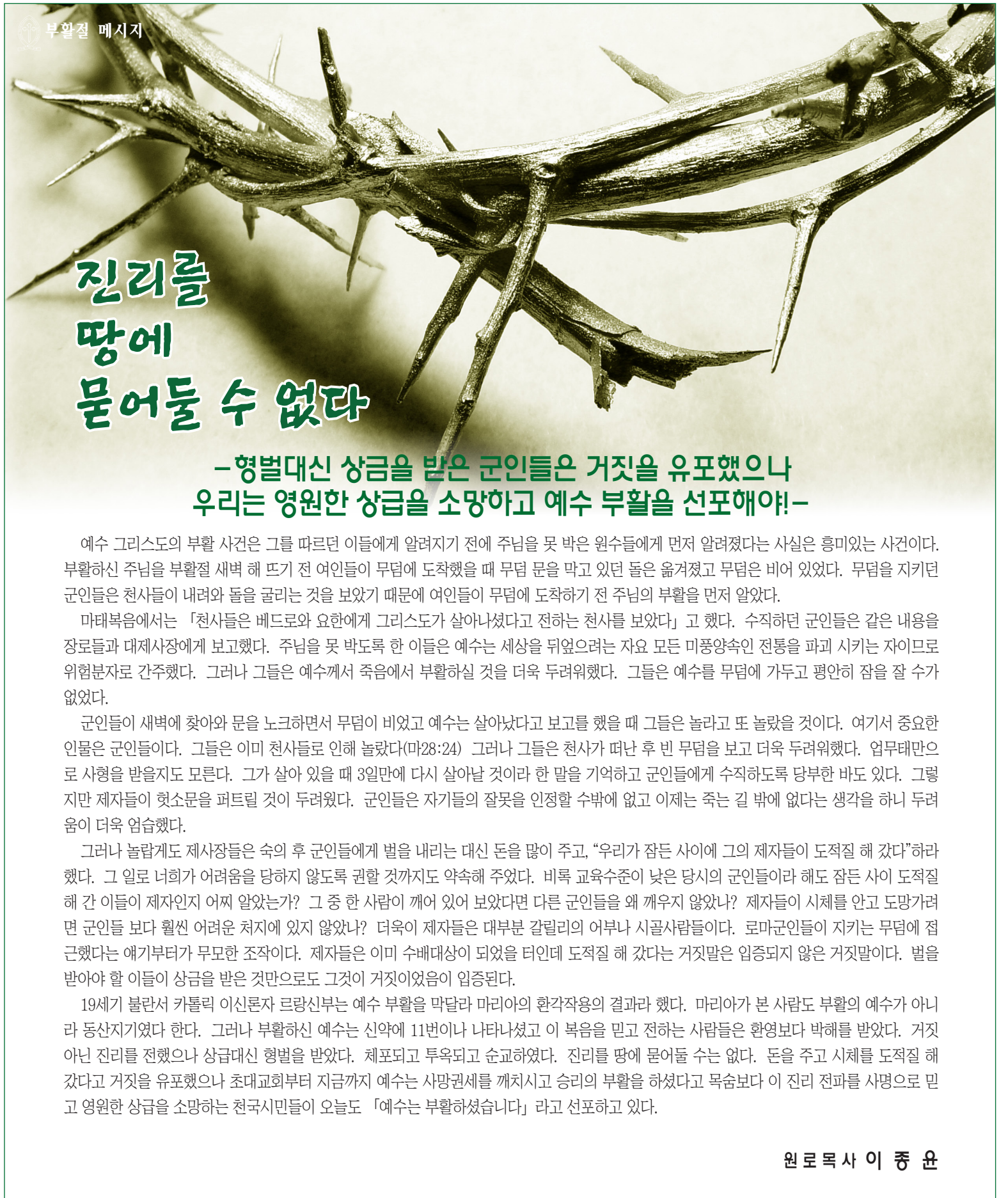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부활절 메시지

진리를 땅에 묻어둘 수 없다

-형벌대신 상금을 받은 군인들은 거짓을 유포했으나 우리는 영원한 상금을 소망하고 예수 부활을 선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주님을 못 박은 원수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는 사실은 흥미있는 사건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절 새벽 해 뜨기 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 주님의 부활을 먼저 알았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천사를 보았다」 고 했다. 수직하던 군인들은 같은 내용을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보고했다. 주님을 못 박도록 한 이들은 예수는 세상을 뒤엎으려는 자요 모든 미풍양속인 전통을 파괴 시키는 자이므로 위험분자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더욱 두려워했다. 그들은 예수를 무덤에 가두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군인들이 새벽에 찾아와 문을 노크하면서 무덤이 비었고 예수는 살아났다고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놀라고 또 놀랐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군인들이다. 그들은 이미 천사들로 인해 놀랐다(마28:24)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떠난 후 빈 무덤을 보고 더욱 두려워했다. 업무태만으로 사형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가 살아 있을 때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한 말을 기억하고 군인들에게 수직하도록 당부한 바도 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릴 것이 두려웠다. 군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죽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더욱 엄습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속의 후 군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도적질 해 갔다”하러 했다. 그 일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권할 것까지도 약속해 주었다. 비록 교육수준이 낮은 당시의 군인들이라 해도 잠든 사이 도적질 해 간 이들이 제자인지 어찌 알았는가? 그 중 한 사람이 깨어 있어 보았다면 다른 군인들을 왜 깨우지 않았나? 제자들이 시체를 안고 도망가려면 군인들 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았나? 더욱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나 시골사람들이다. 로마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 접근했다는 얘기부터가 무모한 조작이다. 제자들은 이미 수배대상이 되었을 터인데 도적질 해 갔다는 거짓말은 입증되지 않은 거짓말이다. 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상금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입증된다.

19세기 불란서 카톨릭 이신론자 르랑신부는 예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의 환각작용의 결과라 했다. 마리아가 본 사람도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동산지기였다 한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신약에 11번이나 나타나셨고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환영보다 박해를 받았다. 거짓 아닌 진리를 전했으나 상금대신 형벌을 받았다. 체포되고 투옥되고 순교하였다. 진리를 땅에 묻어둘 수는 없다. 돈을 주고 시체를 도적질 해 갔다고 거짓을 유포했으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사망권세를 깨치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다고 목숨보다 이 진리 전파를 사명으로 믿고 영원한 상금을 소망하는 천국시민들이 오늘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

원로목사 이종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순결서약식 / 가브리엘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하나님은 죄인 되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2017 순결서약식과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 오치열 장로)가 '메시아'(G. F. HANDEL 작곡)를, 지휘 백경화 권사, 오르간 김현정 집사, 피아노 송재근 선생, 팀파니 윤주일 집

사의 반주로 하나님과 성도들께 들려드린다. 온 성도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찬양예배로 드리도록 한다.

다음은 순결서약자 명단이다.
김지석 우정연 김태수 김요한 최소정 김리나(이상 6인)



오늘 찬양예배 시 갖는 순결서약식은 결혼전 육체적, 정신적 순결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의식이다.

순결서약식은 1994년 10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개한 '정직·절제·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 운동은 시작되었다. 당시 한기총 '정직·절제·사랑 실천운동' 운동본부 사랑분과(위원장 이종윤 원로목사)로 맞아 추진 되었다.

우리 교회는 1995년 1월1일 주일찬양예배 시, 교회로서는



1995. 1 반포동 예배당에서 치러진 순결서약식

처음으로 '순결서약식'을 가졌으며 이날 서약한 청년은 322명이었으며 우리 교회가 주도한 순결서약식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던 중 1997년 4월 30일 연세대 총학생회는 봄철 대학 축제인 '대동제' 기간 중 순결서약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이종윤 목사에게 인도를 의뢰했었다.

순결서약식은 그 뒤로도 전국의 중·고교와 기독교 청소년 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켜왔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재개

매 주일 12:40 ~ 1:20 (2부 예배 후) 504호

지난 1월 15일 이후 중단된 「학부모 기도회」를 다시 재개한다. 지난 8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학부모 기도회」가 혼란한 교회사정으로 중단되었으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멈출 수 없다는 판

단 아래 기도회를 지난 주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어느 누구나 환영하며 2부 예배 후 504호에서 모인다.
문의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다락방 리더훈련 개강

4월19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101호

다락방 리더훈련이 4월19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101호에서 개강한다. 다락방 리더들은 전원 참석하여 교구와 다락방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금주부터 다락방 모임을 갖는다.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 '성례전' I

- 성례전, 신실한 약속의 증표 -



김세광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한국 장로교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선 성례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성례전의 이해는 정체성 규명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재 지역 교회의 목회 사역을 진단하는 데도 중요하다. 오늘의 성례전 이해와 집례는 개혁교회가 표방해 온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리고 성례전의 가치를 강조하고 열심히 성례전을 거행하는 타교단, 초교파적 교회들, 새로운 공동체 교회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성례전 집례는 바르고 충분한가?

우선 이 질문에 대해 즉답을 하면, 현재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성례전은 이미 총회 헌법과 예식서에는 개혁교회의 성례전 신학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나, 아직 지역 교회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교회에서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

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에 대한 인치심으로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

이 고백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성례전'이다. 총회 헌법에서도 성례전은 '은총의 보이는 형태'로 표현했다. 이것과 함께 중요한 설명은 칼뱅의 성례전 이해인데, 그는 성례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표지'라고 하면서, 칼뱅의 대적자인 니고데모파의 성례전의 무용론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들의 신앙의 연합함을 떠받치기 위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의의 약속들을 우리들의 양심에 보증하는 주의 외적인 표"라고 말한다.

개혁교회의 성례전 신학은 세계교회의 교회 일치에 대한 성례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화를 통해 개혁해가는 교회(reforming church)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교회 일치운동의 중심 교단 중 하나로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지녀야 할 성례전 신학을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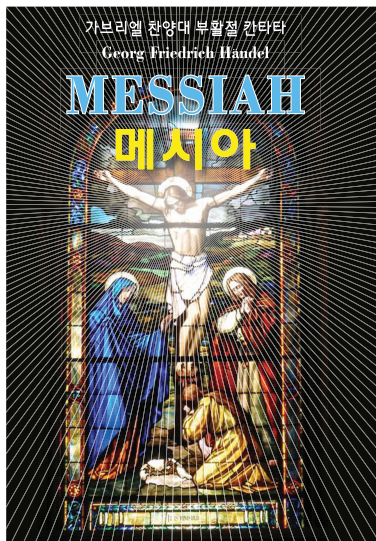
칼뱅이 성례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로 정의한 것을 예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례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성례전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칼 바르்த்த 성례전을 3중적 하나님 말씀의 하나로 정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3중적 이해를 기준으로 보면 말씀 중심을 강조하는 한국 장로교회의 현재 모습은 선포된 말씀(설교) 한 차원에만 치우쳐 있다. 세계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성경)의 봉독도 충분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말씀(성례전)의 집례는 미약한 실정이다.

칼뱅이 기독교강요에서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 성례전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 이유도 성례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표지이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례전 이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개혁교회 신학을 잘 드러낸다.

성례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복음의 의미를 새롭고 실감있게 대할 수 있다. 성례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히 표현된다. 하나님의 행위가 우선(primary)이지 사람의 신앙적 경험이나 열심이 우선이 아니다. 예를들면 세례가 세례 되는 것은 세례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세례자를 중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은총 때문이다. 또한 성만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경험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자신을 떼어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성례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때, 선포된 말씀(설교)에서 설교의 성격상 설교자의 주도적 위치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회복될 수 있다.

-한국기독교공보 제3059호 2016년9월21일에서 발췌 (다음 주 계속)



오치열 장로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홀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공생애를 거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끝에 부활 주일을 맞아 특별히 가브리엘 찬양대가 그 부활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그리고 모든 역경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오니 반드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의 복음화 된 평화통일을 이루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한

국교회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어떠한 사탄의 꾀술도 막으시고 찬란한 믿음의 부흥을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백경화 권사의 지휘 아래 주어진 시간을 몇백% 활용하여 연습하여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메시아'(G. F. HANDEL 작곡)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같으신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채찍 맞아 우리가 치유됨과 부활하신 영광의 왕을 찬양하고 두번째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음을 찬양으로 증거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주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가브리엘 모든 찬양대원들에게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동권 집사
(1교구)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의 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어머니와 헤어지는 날이 오니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일주일에 3일을 혈액투석을 하시느니라 몸과 마음이 약해져가는 모습 속에서도 늘 강건함을 잃지 않으셨고,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 중에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들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 하시던 중앙공원에 가봐도 이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지신 후에는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요예배 및 주일 예배를 드리셨지만 지금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름에도 체중 조절을 위해 물 한모금도 마시고 마시지 못하고 얼음 한 조각으로 갈증을 달래시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5년전 양측 고관절을 수술하시기 전까지는 섬기시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어 기도도 혼신의 힘을 다해 하셨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여장부 다운 기질로 잘 처리 하시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지난 82년간 칠공주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아들을 무던히도 바라시던 부모님 밑에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을 것이고 가난한 피난민의 집으로 시집오셔서 자녀들 기르고 키우시느라 병마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으니 주님과 함께 견고 뛰고 물도 마음껏 마시시고 먼저 가 계신 아버지와 친구분들 만나서 즐겁게 사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소서!

부활의 이 아침!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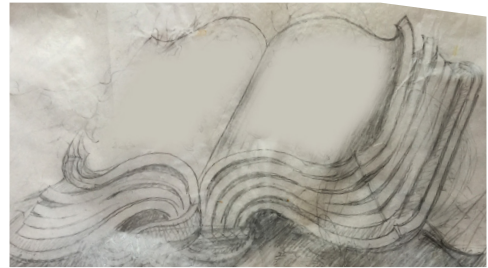
유은경 집사
(8교구)

작년 봄 40여년을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오면서 아버지(고 유윤진 장로) 서재를 정리하던 중 오래되어 빛바랜 스케치 북을 오랜만에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생전 아버지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보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울컥 솟아났습니다.

수 많은 스케치 중 큰 종이에 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눈길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 전에 섬겼던 천교회 마당에 세웠던 돌성경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였습니다. 1990년 흥해작전에 제막식을 목표로 디자인하시고 제작과정을 직접 챙기셨던 돌성경. 큰 돌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강의가 있으신 날이면 한양대에서 채석장이 있는 가평까지 차를 몰고 직접 가서 커다란 원석을 찾으셨고 그렇게 가셨어도 크기나 돌의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돌아오신 날들도 많았던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6m가 넘는 사이즈의 돌을 구하시고 기뻐하셨던 아버지.

돌성경이 큰 돌 하나로 이루어지고 그 돌성경을 받치는 대(臺)가 돌 하나, 총 두 덩어리의 돌이 결합되는 형식이었고 이종윤 목사님께서 한쪽은 십계명 한쪽은 주기도문을 새겨달라는 요청에 십계명, 주기도문을 확대복사에 확대복사를 거듭하여 원하는 사이즈까지 만드시고 딱작업으로 한 자 한 자를 돌에 새기고 그 글자를 석공들이 쪼아서 만든 힘든 작업이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셨던 아버지.

그 돌성경을 천교회가 목회세습문제로 복잡해지면서 한밤중에 폭파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작가의 작품 훼손으로 고소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숨이 돌리시라고 일축하셨던 아



버지, 새예배당 지으면 더 큰 돌성경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시겠다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후 바로 새예배당 조감도나 새로운 돌성경을 그리며 행복해 하시던 아버지. 새로 만드실 돌성경을 위해 동(銅)으로 작은 성경을 두 개 더 만드셨습니다. 두꺼운 구리판을 자르고 용접하고 주기도문, 십계명을 황산으로 부식해서 새긴 동(銅)성경은 현재 하나는 5층 목양실 옆에, 그리고 미국 동생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아버지는 새예배당 건축을 보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새예배당이 완공되고 2002년에 지금의 돌성경이 예전 돌성경보다는 작지만 같은 모습으로 완공하여 봉헌 하던 날 이종윤 목사님께서 돌성경에 아버지 이름 새기는 것을 잊어서 미안하시다 하셨지만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 성경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보였으니까요.

현재 교회 안팎으로 돌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돌성경 있는 곳이 성소라는 사람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성경 제작의 취지는 "성도들이 십계명을 보고 읽으면서 자기의 신앙과 행동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게 하며 주기도문을 읽으며 주님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셨던 말씀이 새삼 떠오르는 부활절입니다.



천국시민양성

교회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



박예정 집사 (고등부교사)

우리가족은 2008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서울교회로 동지를 옮겼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저는 고등부 교사로 임명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월 교사 수련회에서 고등부학생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 자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학부모 기도회의 필요성을 건의하게 되었고 지도목사님께서 교역자회의에 보고 하신 후 당회장 목사님의 승낙을 받아 2009. 3. 8. 주일부터 고등부 교사실에서 학부모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교회 부목사님들께서는 주일 1, 2, 3부 예배에 모두 참석하는 관계로 고등부 부장님과 기도회를 제안하였던 제가 학부모기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녀들의 기도에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부모님들이 점차 모이게 되면서 부족한 가운데 기도회는 매 주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학교의 부서별 예배체제로 전환되면서 고등부 지도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사님이 주관하는 기도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일 2부예배 후 학부모기도회에 오시는 부모의 최우선 기도제목이 자녀들의 좋은 대학 진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짐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준비하는 자녀가 되도록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부모님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자녀를 애용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부모님,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한 심정으로, 또는 재수, 삼수하는 자녀로 인하여 속앓이 하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기도의 목적이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부모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회에서 큰 위로를 받았던 분은 자녀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를 거쳐 결혼을 한 이후

에도 계속 기도회 자리를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름다운 서울교회가 이곳에 있음이, 또 학부모기도회가 매주 개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인 듯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자신의 안일과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이 우선이었고 이를 위한 기도에 더 많은 힘과 정성을 쏟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고등부에서 다시 기도의 문을 열고자합니다. 앞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날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환란으로 교회를 떠나신 분이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초대합니다. 다시 모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울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과 시련을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를 온전히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교회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시렵니까?!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17일(월) 진위중고교 부활절감사채플에서 설교한다. 4월18일(화)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재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 지난 주 간식 및 찬조 : 유명석 문승순 김명화 이정연 정미연

■ 지난 주일 식사 제공 : 최응준 집사 이윤경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MOU체결

호산나대학 -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지난 3월 30일, 호산나대학에서 호산나대학과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상호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은 2010년부터 본교 졸업생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대학이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준비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사에서는 졸업 시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한영훈 경영기획담당

전무는 “발달장애인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곳에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회사에서도 이들의 채용 뿐만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호산나대학은 앞으로 학생들의 취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것이고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 고용주가 만족하는 인력을 배출 할 것이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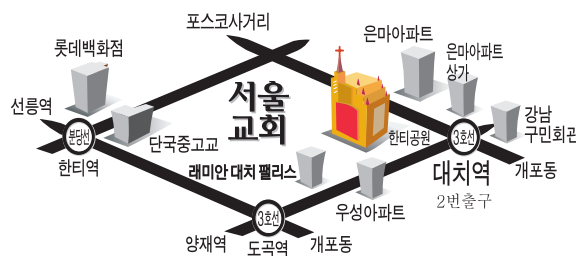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금주 수요일부터 모이는 다락방 리더훈련을 통하여 교구와 다락방이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3. 순결서약에 임한 서울교회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